

# 지역간 자산 격차 갈수록 커진다

### 올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광주 3억9400만원 전남 3억1600만원 서울보다 3억7000만원·4억5000만원씩 적어...부채도 크게 늘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 간 자산격차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억6000만원이 넘는 서울 평균 자산과 비교해 광주는 3억7000만원, 전남은 4억5000만원 가량 뒤졌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2.8%(5711만원) 늘어난 5억2532만원이었다. 이런 자산 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다.

지역 가구당 평균 자산은 광주 3억9428만원·전남 3억164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0번째·15번째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광주는 10.9%(3874만원), 전남은 0.4%(134만원)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 자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12.8%)을 크게 밑돌며, 특히 전남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은 올해 평균 자산이 7억6578만원으로, 최

근 5년 동안(2017~2021년) 전국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올해 서울 가구당 평균 자산은 광주보다 94.2%(3억7150만원), 전남에 비해서는 무려 142%(4억4932만원) 많았다.

서울과 광주의 격차는 지난 2017년 2억4616만원에서 2018년 2억8345만원, 2019년 2억9853만원, 2020년 3억2285만원, 올해 3억7150만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도 2억7048만원(2017년)→3억1461만원(2018년)→3억4044만원(2019년)→3억6327만원(2020년) 등으로 격차를 벌이다 올해는 4억원을 넘겼다.

가구당 빚은 올해 광주 6593만원·전남 4622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2%(557만원), 1.7%(77만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가구 평균 부채는 최근 5년 동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올해 전국 평균 부채는 8801만원으로, 전년보다 6.6%(545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한 부채 증가율은 광주가 부산, 대전,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전남 평균 부채금액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

년 연속 전국 최하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가구 부채 가운데 84.4%에 달하는 5566만원은 금융부채였으며, 나머지 15.6%(1026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나타났다.

광주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10.7%(537만원) 증가했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현상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증가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남 부채는 금융부채 83.6%(3862만원)와 임대보증금 16.4%(759만원)로 구성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광주 3억2835만원·전남 2억7024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2%(3317만원)·0.2%(57만원) 증가했다.

전국 가구 평균 순자산액은 4억1452만원으로, 14.2%(5165만원)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 보면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광주 14.8%·전남 32.7% 급증했다.

올해 이전소득은 광주 830만원·전남 875만원으로, 각각 107만원·215만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 이전소득은 703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은 광주의 경우 전년보다 5.7%(-239만원) 감소한 3920만원, 전남은 1.0%(29만원) 증가한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근로소득이 줄어든 시·도는 광주와 경남(-162만원), 울산(-138만원) 등 3곳 뿐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왼쪽 네 번째)가 지난 15일 본관 1층 광장에서 광주시 서구(청장 서대석) 등과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9호째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올해 난방 지원을 위한 '희망배달기금' 1억여 원을 전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국민들이 뽑은 올 이슈 ...코로나·부동산 폭등

### 전경련 '사회·경제 키워드 조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올해의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3~13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산업, 국제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2021 사회·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사회 분야의 핵심 이슈로는 응답자의 35.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꼽아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관련 스캔들'(32.0%),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종부세 등 '세금 부담 증가'(13.8%), '양당 대선 후보 선출'(11.2%), '세대·젠더·계층 갈등 심화'(7.0%) 등의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기금융, 발송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지속'(26.3%)이 1순위 핵심 이슈로 꼽혔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 '국가부채 급증'(23.9%),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2.9%),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제한'(16.7%), '가상화폐 급등과 폭락 반복'(9.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경련은 "대부분 피루로 외치는 생활 관련 고충이 핵심 이슈로 꼽혔다"며 "응답률 격차도 1~3%포인트(p)로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등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29.8%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29.2%), '2030년 한국은 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 등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19.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39.5%)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뽑혔고 '미중 전략경제 장기화 및 글로벌 공

급망 재편'(25.5%), '중국 헝타사태·공동부유'(14.8%)가 각각 2·3순위를 차지했다.

사회, 경제, 산업, 국제 4가지 분야를 모두 합친 종합 순위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 18.2%로, 1순위 핵심 이슈로 꼽혔다.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11.7%)도 3순위에 올라 올해를 코로나19의 해로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14.0%가 선택한 '부동산 가격폭등 및 관련 스캔들(LH직위 부동산 투기 등)'이 차지했다.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코로나 방역 조치'(23.5%), '국가부채 급증'(14.5%),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11.9%) 등의 순이었다.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 역시 올해와 비슷하게 '코로나19 변이 확산'(30.7%)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 가능성'은 23.4%를 차지해 2순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 불안'은 20.0%로 3위였다.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방역 및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가 28.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21.0%),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19.4%), '미래세대 위한 경제사회 구조 혁신'(16.5%)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06.41 (+17.02)
↑ 코스닥	1007.86 (+4.34)
↓ 금리 (국고채 3년)	1.766 (-0.042)
↓ 환율 (USD)	1183.90 (-1.30)

### 우리동네 농지 임차료

### 한눈에 확인하세요

### 농지은행포털 서비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부터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 지역별 농지 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은행포털은 농지의 필지별 가격과 거래 건수 정보만 제공했다. 앞으로는 농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인 가격과 임차료 정보도 공개한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나온 농지가격 정보는 농지 실거래내역 정보와 표준자·개별 공시시가를 취합·분석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차료 정보는 지역별 임차료를 취합·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농지를 지목(전·답·과)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해 평균 가격, 중위가격, 변동률 등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구축할 예정인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과 농지은행포털을 연계해 인근 의료, 등 정주 여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뢰성 높은 농지 가격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영농정책의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범죄 피해자 생계비 지원 (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최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찬호·왼쪽)을 찾아 범죄 피해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0만원을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윤보선)를 통해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12월 광주 난방가전 매출 전년보다 65% 증가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난방가전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13일 난방가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2% 증가했다. 1인용 난방가전은 매출이 21.4% 증가하는 등 12월 초 매서운 추위에 가전 수요가 '두 자릿수'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매트 매출은 393.8%, 온수매트 175.7%, 전기히터 49.3%, 가습기 43.2%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마트 측은 "고유가에 따라 가정 난방을 돕는 전기매트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대표적 월동용품인 문풍지 등 난방 보조용품을 찾는 소비자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